



What's new

Connect for Impact

제 60 호 | 2023.02.28

딜로이트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딜로이트 안진, 자금사고 징후 진단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RightHouse)'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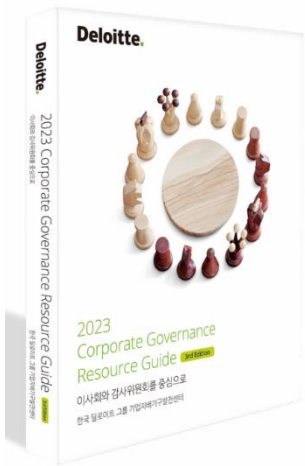
딜로이트 안진, '중동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제별 이해도 제고
이사회·감사위원회 업무수행을 돕는 체크포인트 관련통계자료 등 실무 콘텐츠 강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선진 프레임워크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3rd Edition)’을 발간했습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국내 도입,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증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 등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22년 기준 글로벌 경제 10 위권 경제대국임에도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경제적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항목의 4개 부문을 종합한 순위는 OECD 63 개국 중 27 위인 중위권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업효율성 항목의 세부 내역인 경영활동 항목에서도 한국은 63 개국 중 38 위로, 이사회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정립 및 주주권익 보호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을 지난 12월 말 발간했습니다.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지침은 물론 각 소단원 별 주제에 대해 체크포인트, 관련 통계자료 및 참고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인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 1 장 ‘기업지배구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정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발과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2 장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역할, 이사회 핵심 관심영역 및 이사회 감독기능 효과성 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제 3 장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역할과 책임, 평가·보수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 개정판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은 “이번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계시는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설립 이후 매년 연구활동을 통해 월간 뉴스레터, 분기별 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와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의 한글번역본을 발간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자금사고 징후 진단·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RightHouse)’출시

빅 4 회계법인 최초 감사 및 회계자문 노후자금이상 징후 시나리오 결합...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 솔루션 출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시각화된 그래프와 도표 제공... 횡령빈도 높은 10 개 탐지모듈 기본 탑재
인프라 투자와 관리부담 낮춘 온 프레미스(On-Premise) 기반 ‘구독 서비스’로 제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기업 회계정보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자금 사고 이상 징후를 진단하고 탐지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 솔루션인 ‘라이트하우스(RightHouse)’를 출시했습니다.

ExpertHub™

RightHouse

최근 의료기기, 금융, 통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크고 작은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기업 경영진과 주주들의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자금 회계 ERP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수요에 발맞춰 딜로이트 안진은 빅 4 회계법인 최초로 회계적 관점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으로 자금사고 징후를 진단하고 탐지하는 솔루션인 ‘라이트하우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딜로이트 안진의 기업 감사 및 회계자문 경험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역량이 결합된 구독서비스 기반의 첫번째 솔루션입니다.

기업 회계정보와 자금 흐름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자금 흐름의 이상 징후를 사전 탐지하는 ‘라이트 하우스’는 자금 이상 징후 시나리오를 접목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국내외 주요 횡령 사례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10 여개 탐지 모듈이 기본 제공됩니다. 탐지 모듈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업의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제청을 포함한 검증된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금사고의 징후에 대한 탐지 확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라이트하우스는 자금 사고 징후 및 원인을 시각화한 그래프와 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진은 쉽게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한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빠르게 파악해 자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금 관련 업무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자금사고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어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라이트하우스의 장점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초기 구축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정보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사업과 달리, 솔루션 설치형인 온 프레미스(On-premise)기반 ‘구독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고객사는 내부 서버에서 운영되는 라이트하우스에 접속해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향후 라이트하우스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SaaS)’로 전환해 고객사의 인프라 투자와 관리 부담을 더욱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장수재 딜로이트 안진 회계감사본부장은 “라이트하우스는 딜로이트 안진의 감사 경험 및 데이터 애널리틱스 역량이 집합된 솔루션으로, 자금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원하는 기업에게 차원이 다른 전문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라이트하우스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감사 및 회계자문 서비스에 접목하는 디지털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딜로이트 안진, ‘중동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성료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주최...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후원으로 진행
중동지역 투자·법무·세무·분쟁해결 전문가들의 시리즈 강연 진행... 중동지역 비즈니스 환경 변화 쟁점 다뤄
중동 산유국들, 탄소제로 체제 대응위해 기술 주도형 선진강국으로의 전환 추진 박차
국내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할 것으로 기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인은 지난 2월 23일 회계법인 최초로 ‘중동지역 투자 진출 세미나(Doing Business in Middle East)’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동지역 관련 투자·법무·세무·분쟁해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동지역 투자·운영 시 주의점, 시장동향,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지역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제 2의 중동붐’이라 불릴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중동지역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중동지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구조적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동지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인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연계해 상세한 분석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무영향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GCC(걸프협력회의)와의 FTA 체결 관련 업데이트 사항, 해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플랜, 중동지역의 법인세와 이전가격 이슈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이 외에 중동지역 ‘건설사업’ 진출과 관련한 강연도 준비됐습니다. 이재성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가 ‘중동지역 위기관리 및 분쟁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프로젝트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한 증거기반 위험관리 및 분쟁예방 전략에 대해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은 과거 다년간 중동진출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계약 및 건설 분쟁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 파트너사인 Clyde & Co의 전문가도 강의를 맡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환경, 법무 환경, 건설 계약, 분쟁해결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지원에 대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는 최근 사업현황 및 지원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중동지역 진출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 요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필두로 중동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핵심 시장으로 부각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동지역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동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가기>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